

간호대학생의 심리상태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

김은정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the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e on Psychological States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Eun-J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Pyeongtae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의 행복감을 높여 내면화된 가치를 가지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01명의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집단간 차이는 t-test, ANOVA 검증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과 심리상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분노로 인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인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감소해 자아탄력성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노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증되었으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교육방식을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happiness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happiness and perform their studies with better internalized valu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self-resilience, anger scal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401 nursing students were measu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d ANOVA tests.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tates were calculat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for assess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academic efficacy, self-resilience and self-directedness. Subjective happiness and predictors of the stud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lower the self-directedness was, the higher the subjective happiness that is reduced by anger was. The higher the self-elasticity, the lower the degree of the subjective happiness that is reduced by anger. Si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has been demonstr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ng proper pedagogy so that the educational method of enhancing self-directedness can be reflected in the field of nursing.

Keywords : Anger, Happiness, Academic-Efficacy, Ego-Resilience, Self-Directedness, Interac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Department of Nursing, Pyeongtaek University)

email: ejkim7888@gmail.com

Received December 5, 2019

Accepted March 6, 2020

Revised January 7, 2020

Published March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과 안녕감(well-being)은 간호학 분야에서 발전 시켜온 개념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1]. 이러한 개념은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구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인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GDP와는 대조적으로 정체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행복감 및 안녕감은 간호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문의 가치, 중요성, 의미를 공감하며 학업에 임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데, 학업의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internalization)한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3]. 내면화는 프로이트가 언급한 '동일시'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비록 외재적 동기에서 시작한 학문일지라도 그에 대한 가치를 깊이 내면화 할수록 그 일은 자아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 내재적 동기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4].

그러나 행복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인들만으로 행복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행복에 이르는 경로도 다양하다. 따라서 행복을 정의할 때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5,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등의 감정이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으며[7],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높으면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8]. 또 다른 변인으로 성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낙관성, 지존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의식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6].

한편, 불안, 우울, 자존감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여 불안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9]. 이러한 결과는 부정정서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10], 분노표현 방식이 대인관계 기술과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의 행복감을 보다 높여 내면화된 가치를 가지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 행복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정도를 알아보고, 분노와 행복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대상자의 분노, 행복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노 정도에 따른 행복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분노와 행복 간 관계에서의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1.2 연구 방법

1.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1.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A지역의 A대학에 다니고 있는 1,2,3학년 학생이다. 이들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총 401명을 임의 추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1.2.3 연구도구

1) 분노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분노에 대한 측정도구는 Spielberger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도구(STAXI, State-Trait Expression Inventory) 44문항을 활용하였다[11]. 이 44문항은 상태분노 10문항, 기질분노 10문항, 분노표현 24문항의 하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표기하는 4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대학생의 분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노조절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의 점수를 합한 후, '분노억제+분노표출-분노조절+16'의 산출방식을 통해 분노표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755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행복감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부정적 느낌의 부재를 측정하는 도구로 Hills와 Argyle가 개발하고[12], 국내 연구진이 번역한 [13]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QH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동의함'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0.891이었다.

3) 학업효능감 측정 도구

간호대학생의 학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채점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841이었다.

4) 자기주도성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Guglielmino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ness Scale: SDLRS)[15]를 우리말로 번역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K-96)[16]을 기본으로 하여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연구에 사용한 한 연구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7]. 이 도구는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애착, 미래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등 총 7개요인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878이었다.

5)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가 있는데, 그동안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으나, 실제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자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Klohenn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G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18]. 이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감,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등 총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99이었다.

6)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학과를 방문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409부 중 부적절하게 기재된 8부를 제외한 4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개인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548-KU-IRB-16-164-A-1(E-A-1)).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주관적 행복감은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집단간 차이는 t-test, ANOVA 검증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분노로 인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본론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중 1학년 120명(29.9%), 2학년 128명(31.9%), 3학년 152명(37.9%)이었으며, 측정변수인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분노척도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간호 대학생의 학업효능감의 경우에 2.56점이었고, 자기주도성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46점이며, 자아탄력성 정도는 5점 척도에서 문항평균 2.76점으로 중상 수준을 보였다. 분노척도의 경우 상태 분노의 경우 2.22점이고, 기질분노의 경우 그 점수가

1.34점으로 다소 낮았다. 그러나 분노표현의 경우, 24점 만점 중 22.97점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6점 척도에서 3.90점으로 중간 이상의 행복감을 보였다.

Table 1.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Ego-resiliency, Anger scale (n=401).

Variables	M	SD
Academic efficacy(4 Likerts scale)	2.56	0.350
Self-directedness(5 Likerts scale)	3.46	0.375
Ego-resiliency(5 Likerts scale)	2.76	0.554
Anger scale	State anger	2.22
	Trait anger	1.34
	Anger expression	22.97
Subjective well-being (6 Likerts scale)	3.90	0.631

일반적 특성과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자기주도성은 '보통이다'의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학업효능감, 상태분노, 기질분노는 4점 척도의 중간 점수인 2점을 기준으로, 분노표현은 평균값인 23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복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의 경우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자아탄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기질분노, 분노표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n=401).

		M	SD	T or F	p-value
Grade	1 st	3.86	0.61	50.623	<0.001
	2 nd	3.88	0.61		
	3 th	3.94	0.65		
Academic efficacy**	low	3.89	0.59	0.515	0.613
	high	3.97	0.63		
Self-directedness*	low	3.76	0.66	-1.428	0.059
	high	3.91	0.62		
Ego-resiliency*	low	3.83	0.63	1.525	0.028
	high	3.93	0.62		
Anger scale	State anger**	low	3.90	-0.445	0.006
		high	3.87		
	Trait anger**	low	3.01	-1.718	0.089
		high	4.87		
	Anger expression***	low	3.90	0.163	0.871
		high	3.89		

* Low: 3< Group /High: 3≥ group
 **Low: 2< Group /High: 2≥ group
 ***Low: 23< Group /High: 23≥ group

2.2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인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분노척도 중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나 학업효능감과 기질분노 및 분노표현은 그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observed variables.

		Anger scale			Subjective well-being
		x1	x2	x3	
Academic efficacy	1				
Self-direction	.625**	1			
Ego-resiliency	.609**	.499**	1		
Anger scale	x1	-.007	.064	-.022	1
	x2	.052	.005	.034	.277**
	x3	-.121*	.285**	-.088	.008
Subjective well-being	.047	.058*	.119*	-.009*	.061
				.039	1

x1 State anger; x2 Trait anger; x3 Anger expression
 ** p<0.01, *p<0.05

2.3 연구변수 간 회귀분석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 중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설명변량은 14%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주도성, 학업효능감이 제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게 제시되고 있다.

Table 4. Stepwise Regressions on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y.

Dependent variable	Predictor variable	β	R ²	ΔR ²	ΔF
Academic efficacy	Ego-resiliency	0.051	0.015	0.001	0.524*
	Self-direction	0.002	0.014	0.000	0.001

** p<0.01, *p<0.05

Table 5.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n Ego-resiliency between Anger and Subjective well-being

	B	SE B	β	p-value
Upper group	0.294	0.141	-.172	0.003*
Lower group	0.312	0.117	-.261	0.006*

*p<0.05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72$, $p<.05$),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도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61$, $p<.05$). 그러나 β 의 절댓값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졌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분노로 인해 행복감이 크게 감소하여, 자아탄력성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분노,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성, 학업효능감을 파악하고,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 학업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느끼는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탄력성 및 자기주도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자아탄력성, 상태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주관적 행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관적 행복감과 연구의 예측변인인 자아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분노척도 중 상태분노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감정이 주관적 행복과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몇 연구에 따르면 낙관성, 자존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의식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7]. 본 연구에는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방식과 학업에 대한 효능감 등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8].

둘째,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행복 및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도 분노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자아탄력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1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자아탄력성과 행복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21].

셋째, 분노로 인해 감소되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낮아져서 자아탄력성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학생들의 학교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와 일치하며[2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3-25]. 또한,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다[7].

그러나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지역 1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집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타 지역의 대학생 또는 동일 연령대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가보고 편향(bias)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분노 정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대상자의 분노와 행복

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측정해봄으로써, 분노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는 행복감이 자아탄력성을 개발해줌으로써 이러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eligman, Martin EP.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2002 (2002): 3-12.
- [2] Bae GI. "Korean 'quality of life'." dongA. com. Retrieved October 13, 2011, from <http://news.donga.com/3/all/20110821/39699364/1> (2011, August 22)
- [3] Deci, Edward L., and Richard M. Ry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002): 3-33.
- [4] Grolnick, Wendy S., and Nicholas H. Apostoleris. "What makes parents controlling."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161 (2002).
- [5] Diener, E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1984): 542.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6] Diener, Ed, et a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99): 276.
- [7] Gao HY. A comparative study on mental health and happines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llege students. Asian J Educ 2009;10:55-71 DOI: <https://doi.org/10.15753%2Faje.2009.10.1.003>
- [8] Nanthamongkolchai, Sutham, et al. "Factors influencing life happiness among elderly female in Rayong Province, Thailand." 2009.
- [9] Han DH. *The influence of the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on the anger expression type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2009)
- [10] Jerome, Elisabeth M., and Miriam Liss.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2005): 1341-1352.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4.08.016>
- [11] Chon KK, Hahn DU, Lee JO, Spielberg CD.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 Health Psychol 1997;2:60-78.
- [12] Hills, Peter, and Michael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2002): 1073-108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13] Choi YW, Lee SJ.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 2004;9:887-901.
- [14] Kim AY,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1 pp. 95-123, 2001.
- [15] Guglielmino, L. M. (1978).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7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6467A
- [16] Jung JW, Kim JJ. *Guideline of Self-Directedness learning*, Seoul: Education Science.(in Korean), 1995
- [17] Park JH. *Research on the self-determination of adult learner in the cooperat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8
- [18] Klohnen, Eva 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996): 106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5.1067>
- [19] Cho KS, Nam K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the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1, 15(4), 161-178.
- [20] Kang YH. Implications of Happiness studies to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2, 25(2), 1-21.
- [21] Lee HN, Jeong HJ, Lee KH, Lee HJ.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erception,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6, 7(3):701-713.
- [22] Lee MJ..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2009
- [23] Kang MH, Lee S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 20(6), 265-293.
- [24] Oh MK, Ahn JY, Kim JS.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1, 20(3), 165-180.
- [25] Lee S, Lee SJ. Study on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Education Review, 2010, 30(1), 85-113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정책, 만성질환, 건강결과연구